

필리핀 最初原電 解體 論難

- 資金, 技術面의 問題 山積 -

필리핀電力公社(NPC)가 Bataan半島에 건설하고 있었던 同國 最初의 原子力發電所 PNPP 1號機(PWR, 68萬KW)의 시설은 현재 마르코스前政權의 遺産이라고 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PNPP 1호기는 1976년 美國의 웨스팅하우스(WH)社와 11億달러의 턴키方式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후 美國原子力規制委員會(NRC)로부터 火山活動과 地震의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1979년의 TMI事故 余勢를 받아 계획이 일시 중단되었었다.

필리핀側에서는 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계획이 同國에서 建國以來 최대의 프로젝트였다는 余波가 커서 마르코스前大統領은 安全性을 재검토하기 위한 特別委員會를 설치하여 이에 對處했다. 그후 WH社가 立地의 특수성을 고려한 安全追加措置를 취하여 1980년 5월 NRC의 輸出許可가 나왔고, 필리핀側도 이 설계변경을 받아들여 19億달러로 再契約이 이루어졌다.

建設工事は 1981년 9월에 再開되어 1984년 여름에 거의 완성되었는데, 아키노氏 暗殺이후 政治的 이유에서 原子力委員會는 PNPP 1호기의 運轉認可發給에 있어서 안전성 및 경제성에 대하여 1985년 6월 부터 公聽會를 열어 審議했다.

금년 3월에 發足한 아키노政權은 4월30일 계획의 凍結을 결정했는데, 대통령법률고문인 R.

사기서크氏를 委員長으로 하는 特別委員會는 5월14일 PNPP 1號機의 解體를 권고했다.

사기서크委員長은 PNPP 1호기를 운전하면 必然的으로

- ① 直接運轉費,
- ② 安全強化對策을 위한 追加코스트,
- ③ 廢棄物處理費用,
- ④ 技術者養成費用

등이 필요하게 된다는 이유로 運開에 반대하였다.

8月中旬 필리핀政府는 行政改革, 經濟再建政策의 一環으로 PNPP 關聯機構의 改編을 決定이로서 PNPP와 그 부속시설이 사기서크委員長의 直轄이 되었고 또 건설에 관한 債務者는 NPC에서 中央銀行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PNPP의 凍結作業은 全體의 약20%가 완료된 狀況인데, 이 작업에 있어서 사기서크委員會는 外貨의 사용을 일체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NPC의 기술자는 외국인 기술자의 원조없이 독자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나 자금면에서 PNPP의 유지관리가 충분히 행해진다는 보증이 없다.

이 發電所에 관한 최종적인 정부결정이 論難의 대상이 된 또 하나의 이유로 對外債務問題가 있는데, 필리핀政府가 그 해결에 힘쓰고 있는 期間에 코스트가 더 높아질 것이므로 解體가 결정될 展望이 크다.